



20세기 유럽 노동운동의 성과와 전망

제35차 국제노동사학자대회 리포트

1999. 9. 14~18, 오스트리아 린츠

이진모

한남대학교 수석강사



혁명의 실패! 개혁의 성공?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통해 '현실 사회주의'의 비극적 몰락이 가시화 된 지 벌써 1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당시 서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동구권 붕괴에 직면하여 낭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 사회민주주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되찾아서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실패를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종래 입장을 다시 전면에서 내세우기 시작했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비약적 성장과 동구권 '현실사회주의'의 극적 몰락을 빗대어 "결국 베를슈타인이 레닌에게 완전히 승리"했으며, 이는 혁명(revolution)이 아닌 개혁(reform) 노선이 정당했음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20세기를 매듭짓는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좌파 정당은 유럽연합(EU) 15개국 가운데 스웨덴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에서 단독 정부를 구성하거나 연립 정권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수년동안 있었던 유럽 3대 핵심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총선거에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리오넬 조스팽의 사회당,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사회민주당이 잇달아 승리하자 이러한 태세가 한층

무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럽 사회주의내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강세가 곧 노동운동의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민주주의에도 영향을 주어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특히 경제 정책에서 점차 신자유주의 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동운동 진영으로부터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실 노동당이든 사회민주당이든 계급정당에서 벗어나 국민정당을 표방한 지는 이미 오래지만 오늘날 블레어와 슈뢰더가 주장하고 있는 "제3의 길" (The Third Way) 이나 "새로운 중도노선" (Die Neue Mitte)은 어제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도 다르다(토니 블레어와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공동 작성, 발표한 선언문에 노동자(Arbeitnehmer)라는 용어가 다섯번 나오는 반면에 경영자(Unternehmer)는 열두번 등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흡스봄은 오늘날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내지 민주적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융합을 뜻하며, 이는 시장 논리에 대한 "일종의 이론적 굴복"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이미 70년대이래 지속적인 실업률 상승, 노조조직률 저하, 노동자층 분화로 인한 연대의 약화내지 노동운동 진영 내부의 이해 대립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노동운동은 좌파 정당의 집권에

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상 여러 단계의 도약과 실패를 거듭하며 발전해 온 유럽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은 자본의 '세계화'로 특징지어지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길을 모색하기에 분주하다. 그런데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세기말 혼미한 현실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정체성 확인을 통해 현재를 재인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역사가들이 깊어져야 할 몫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9월 14일에서 18일까지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제35차 국제노동사학자대회>는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운동을 20세기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재조명하며, 다가오는 21세기 노동운동을 전망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영국의 에릭 홉스봄을 비롯하여 학회에 참석한 노동사학자들은 우선 20세기가 과연 "노동운동의 세기"였냐는 근본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시작하여 20세기 노동운동의 성과를 재검토한 뒤, 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내려졌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70년대 이후, 그리고 동구권 몰락 이후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진단한 뒤 앞으로 노동운동의 과제는 어디에 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20세기는 '노동운동의 세기'였나?

첫 발표자로 나선 에릭 홉스봄은 1900년 제2인터내셔널 대회를 시점으로 노동운동과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가 전쟁상태가 아닌 "공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 상태가 20세기 내내 유지되었다는 태제를 제기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20세기는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및 국가와의 "공존"을 근본 토대로 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세기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서구에서 실현된 팔목할 만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민주화, 철저한 사회보장과 복지제도 확립은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성과이며, 따라서 20세기를 '노동운동의 세기'로 지칭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홉스봄의 견해에 참석자들은 폭넓게 공감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세기를 특징짓는 노동운동의 팔목할 만한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었으며, 여기에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정당의 관계, 양자와 국가의 관계가 주 토론 대상이 되었다.

1900년대 초, 유럽 각국 정부는 폭넓은 계급의식에 기초하여 대두하고 있던 조직 노동운동에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반면 노동운동 진영은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거나 사회주의 정당이 부르주아 정당과 타협 없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경우 말고는 정부 형성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홉스

서구에서 실현된 광복할 만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민주화, 철저한 사회보장과 복지제도 확립은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성과이며, 따라서 20세기를 '노동운동의 세기'로 지칭하는데 무리가 없다

봄 논지의 출발점이다.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의 과제』가 출판되고 '혁명이나 개혁이냐'의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노동운동 노선 변화의 기점으로 볼 수 있는 인터내셔널 1900년 대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프랑스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정부에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또한 수정주의 문제에서도 독일 사회민주당은 베른슈타인이 내세운 개혁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일체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조합과 함께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폭넓게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사회민주당은 이후 선거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독일 제국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의 득표 결과는 비약적 증가를 보여준다. 1890년에는 2,107,000표, 1903년 3,010,000, 1907년 3,258,000표, 1912년 4,250,000표였다). 자본주의 물막이 전혀 예견될 수 없던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택한 개혁주의 노선은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 사회보장과 복지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했고, 그 결과 대다수 노동자들로부터 폭넓

은 호응을 얻었다.

두 번째 주 토론 주제였던 '노동운동과 정당, 특히 사회민주주의와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동자 정치운동의 형성과 전개를 논할 때, 20세기 대중정당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각종 시민당의 출현과 발전이 특별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다만 클라우스 텐펠데(Klaus Tenfelde)가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을 엄격히 구별하여 노동조합 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저항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성장한데 비해 사회민주주의는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을 때 논란이 제기되었다. 토론자였던 이탈리아의 브루노 그로포(Bruno Groppo)는 노동자 정당의 출현은 노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사회민주당 형태의 정당은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사회의 미래에 관한 분명한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조직이기도 했고, 또한 사회주의 운동의 일

부이기도 했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 정치 조직적인 면 아니라, 노동운동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었고, 양자는 인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텐켈대의 태세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에 기여한 바에 대한 긍정 일변도 주장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민주당의 역사적 업적과 과오에 대해 계속된 토론과 중간 휴식 시간에 있었던 참석자들, 특히 동서 양진영 역사가들 사이의 대화에는 흥미롭게도 아직 냉전 정서가 남아있었다. 냉전 당시와 변한 사실이 있다면 이들은 당시에는 대등하게 경쟁하는 체제의 옹호자로서 격렬한 논쟁 파르너였지만, 이제는 괴망한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적장 잃은 연구자가 자신의 노선이 역사적으로 입증받았다고 자부하는 승리와 마주서 있는 것이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전쟁 체권에 대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찬성, 러시아 혁명을 분쇄하기 위한 서구 국가의 개입을 막지 못한 점, 과시즘 세력을 지지하지 못한 점등은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피상적 관찰자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낡은 이념쟁에 입각한 도식적인 비판은 역

사적 사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현실에도 장애가 될 냉전의 잔재 아닌가?

20세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방어 도구였나?

홉스봄은 공산주의와 히틀러의 위협 없이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베크슈타인이 스탈린이나 히틀러 없이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 홉스봄은 아마 그렇지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영국의 에릭 홉스봄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홉스봄은 개혁주의를 가능케 했던 세 가지 기동으로 첫째 대규모 노동자 집단과 그들의 계급의식, 둘째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한 공포, 셋째 완전고용 정책이 가져왔던 호황과 경제 성장을 언급했다.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련 전체주의와 히틀러 파시즘의 위협이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한편 텐켈데는 1945년 이후 서유럽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점에 주목하는데 이와 같은 20세기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는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본주의의 예방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사회민주주의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유럽적 특수성에서 태어나고 발전한 "유럽적 현상", 즉 유럽적인 근대로의 전환과정에 형성되었고 시기적으로 한 때 불가피했던 역사적 현상이었다. 텐켈데의 태제는 이에 미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가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이래 약 70년 동안 체제 경쟁에서 서구 국가들의 반공산주의 예방전략에 중요하게 기여하였다는 도발적인 논점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수잔 밀러(Susanne Miller), 헬가 그레빙(Helga Grebing)등 사회민주주의에 우호적인 독일 역사가들은 스탈린 이전에 이미 빠른 슈타인식 개혁주의가 관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던 사실을 날날이 열거하

며, 사회민주주의의 개혁노선은 공산주의의 등장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고 강력히 반박하였다.

브루노 그로포도 텐켈데의 태제를 비판하며,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개혁하고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사실이 적어도 1945년 이후 유럽 사회복지국가의 형성을 설명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상 사회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가 없던 곳, 그리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없던 곳에서도 출현하였는데 이런 곳들에서 사회국가는 최상의 사회보장을 확보하려는 노동운동 열망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노동운동의 위기 -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종식?

노동운동의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적 조건에 대한 논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개혁주의 노동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아직 전통적 노동운동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홉스봄은 개혁주의를 가능케 했던 세 가지 기동으로 첫째 대규모 노동자 집단과 그들의 계급의식, 둘째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한 공포, 셋째 완전고용 정책이

가져왔던 호황과 경제 성장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둥은 이제 흔들리고 있거나 사라졌다고 그는 진단한다. 완전 고용 대신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실업률”이란 독트린이 등장하였으며, 공공복지 조치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경제발전의 장애물밖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비치고 있다. 게다가 노동운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국민국가마저 세계경제 앞에서 움츠러 들고 있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폴란드 출신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n)은 노동운동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흥미로운 각도에서 관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근대의 특징인 자본과 노동의 상호의존 관계는 점차 사라지고 자본과 소비자의 결합이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은 안정성을 상실해간다. 사실 오늘날 평생직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직장 동료들과의 지속적 교류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방식의 조직화된 노동운동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었다는 바우만의 тезис는 사실 반박하기가 어렵다.

또한 70년대이래 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구 노동계급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복지가 광범위하게 향상된 결과, 연대와 집단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확고했던 옛 인식이 점차 희미해

지고 있다. 급격히 변화한 정치·사회·경제 상황, 특히 노동자 계층의 분화, 전통적 노동자정당의 국민정당화,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움직이는 “유연한 자본주의” 대두에 직면하여 20세기 방식의 조직 노동운동 - 노동조합, 협동조합, 정당 - 은 이제 역사적 과제를 다했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21세기 노동운동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질문이 제기되었었다. 다렌도르프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사회민주주의의 승리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아직도 노동운동의 정치적 표현인가? 노동자정당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였나?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은 아직 가능한가? 의문이 꼬리를 잇는다. 사회민주주의의 성과가 자신의 전통적인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역설에는 흠소부도 동의한다. 그러포도 유럽에서 노동자 정당이 역사적 수명을 다했으며, 사회민주당들이 계급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국민정당으로 변모해간 것은 이미 간전기(1차대전과 2차대전기 사이의 기간)이래의 일이며, 이 경향은 1945년 이후 한층 명확해졌다고 확인하였다. 1959년 채택된 독일 사회민주당의 고테스베르그 강령은 그 상징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노동자계층이 줄어들고 화이트 칼라 사무원층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는 전체 고

노동운동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계없이 발표자들은 '발정치화', '발연대', '개인주의'의 극복이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했다.

용노동자의 낮은 비중을 무시하고 포기해도 될까? 덴켈데는 흡스봄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이 존재하는 한 노동운동은 지속할 것이며, 단지 노동자정당은 과거의 유물이지만 노동조합은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봉급생활자를 포함한 고용노동자(더 이상 노동자만이 아닌)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적합한 조직이라고 파악한다.

21세기 노동운동은 어디로?

20세기 개혁주의 노동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단계의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흡스봄의 관찰은 21세기 노동운동을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임금노동이 존재하는 한 계급투쟁과 노동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앞서 덴켈데가 지적한 사항 말고도 노동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의 견제에 주목한다. 국가는 "시장이 만족시켜줄 수 없는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유일한 기관으로, 그리고 사회적 개선을 위한 투쟁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세계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그는 주장한다.

21세기 노동운동을 논할 때, 신흥산업 국가에서 노동운동이 아직 성장 가도에 있다는 사실이 자주 무시되어왔다. 이번 학회에서도 흡스봄 말고 이 문제를 주목한 사람은 없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산업노동자층은 축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서구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그들이 이론적으로 내세웠던 국제주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국가적인 틀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으며, 유럽노동운동은 이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제연대의 강화에 전력해야 한다는 지적은 학회 참석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운동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계없이 발표자들은 '발정치화', '발연대', '개인주의'의 극복이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했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시민사회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 즉 노동자와 시민 개개인이 마찬가지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창조하고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노동운동의 미래를 가늠하는 열쇠라

는 데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들 새로운 노동자층을 개인주의화, 탈정치화, 탈연대라는 전반적 경향에서 벗어나, 때로는 강자로서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더라도 자기나라 또는 이웃, 특히 제3세계의 약자들과 연대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가? 연대를 기대하고 염원하는 것이 사라져 가는 옛 노동운동과 헤어지지 못해 오래도록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헛된 꿈이라 비난할 수 있는가? 19세기 노동운동의 초기 상황도 사실 이와 다를 바 없었다. 강자가 약자와 연대하는 것을 막을 "인류학적 장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 노동운동의 정신으로 21세기 상황에 맞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창출해내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가 아닐까?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창출하는데 사회주의의 역할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주장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일까? 분명 체제로서 사회주의는 역사의 유물이 되었다. 그러나 앙드레 고어(Andre Gorz)가 주장하듯이 "시민혁명으로 시작된 인간해방의 과제를 완성해가는 전망과 운동"으로서 사회주의의 중요성은 인간이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았지 않은가? 대화를 마치면서 이런 물음들이 떠올랐다. ❖